

본당 소식

2024년 4월 생활말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사도 4.33).”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시기 때 전례에서 바뀌는 부분, “신앙의 신비여”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 구역 모임 및 회의
 - 청년구역 모임: 4월 7일 미사 후, 사제관
 - 1구역 모임: 4월 10일(수), 09시30분, 노베라스코(Le Rovedine)
 - 차주 사목회의: 4월 14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성서 모임: 4월 28일 미사 후, 사제관

- ♣ 봉사자
 - 계단,화장실: 현상휘 루치아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성삼일 이웃돕기 성금 400.45
 - 봉헌금 236,00€ • 교무금 390,00€

전례 성가

입당 : 136(예수 부활하셨도다)
 봉헌 : 217(정성어린 우리제물)
 성체 : 164(떡과 술의 형상에), 498(예수여 기리리다)
 파견 : 134(거룩하다 부활이여)

전례 봉사

이번 주일(7일)	다음 주일(14일)
1독서: 현상휘 루치아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2독서: 박지숙 레아	2독서: 구희선 스텔라
복 사: 변가인 헬레나,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4월 7일 (백)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 하시 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1독서 (사도행전 4,32-35)

32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34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제2독서 (요한 1서 5,1-6)

사랑하는 여러분, 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2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4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5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6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이를 본받아 실천하며,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용감히 전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의 주님, 선거를 앞둔 이 나라를 굽어살피시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하시고, 뽑힌 이에게는 정의와 지혜를 심어 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3. 여성들의 존엄과 소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을 보살피 주시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없애게 하시며, 여성의 소명을 일깨워 주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